

**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신실하시고  
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**

성경: 신 1:8-18, 16:18-20, 17:8-20, 19:15-21, 21:1-9, 18-23, 22:13-30,  
24:1-4, 7, 16, 25:1-3, 5-16, 7:9-15

**I.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, 곧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신성한 통치적인 행정을 계시한다**

— 사 9:6-7, 계 4:2, 5:6, 신 1:8-18.

- A.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왕국의 행정적인 중심이다 — 마 3:2, 6:10, 13하.
- B.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통치 안에서 왕이시고 입법자이시며 심판자이시다.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의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이시다 — 사 33:22.
- C.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을 다루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다 — 뵤전 1:2, 히 12:6.
  - 1.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, 여전히 옛 창조물 안에 있다 — 요 1:12-13, 3:3, 5-6, 고후 5:17, 요일 3:1.
  - 2. 이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이 필요하다 — 뵤전 1:17, 4:12.
- D.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써 통치하신다.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통치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— 뵤전 1:17, 4:17, 5:6, 9.
  - 1. 주 하나님은 여러 종류의 심판을 통하여 우주 전체를 말끔히 치우시고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.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얻으심으로써,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그분의 의로 충만한 새로운 우주를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— 뵤후 3:13.
  - 2.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. 그러므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— 뵤전 1:17.
  - 3.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적인 행정의 심판 안에서 불같이 흑독한 시련을 사용하셔서 믿는 이들을 다루시는데,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— 뵤전 4:12, 17.
- E.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하셨고,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인간 생활을 사셨으며,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셨다 — 요 6:38, 뵤전 2:21-23.
  - 1. 주님은 그분 자신께서 받으신 모든 모욕과 상처를 의롭게 심판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계속 맡기시고, 의로우신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— 뵤전 2:21-23.
  - 2. 주님은 의로우신 이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통치를 인식하셨다 — 뵤전 2:23.

## 신명기

### 메시지 2 (계속)

- F.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달아야 하고, 하나님의 통치를 존중해야 하며,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를 배워야 한다 — 뵤전 5:6.
1.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동안,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.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통치와 협력할 수 있도록 그분의 공급을 우리에게 주신다 — 뵤전 5:5, 뵤후 1:1-4, 3:13.
  2.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져야 한다 — 뵤전 5:6.
    - a.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‘하나님의 권능의 손’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손을 가리킨다 — 뵤전 1:17, 4:17.
    - b.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겸손하게 되는 것이다.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협력해야 하며, 그분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기꺼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한다 — 뵤전 5:6.

## II. 신명기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에 관해 말한다 — 신 16:18-20, 17:8-20, 19:15-21, 21:1-9, 18-23, 22:13-30, 24:1-4, 7, 16, 25:1-3, 5-16.

- A. ‘통치적인 행정’이라는 표현이 신명기에서 발견되지 않지만, 우리가 이 책을 철저히 읽어 본다면, 이 책이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책, 심지어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.
- B.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다루시는 것은 그분의 통치적인 행정을 집행하시는 것이었다 — 계 3:19.
1.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통치적으로 그들을 다루시는,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이시다.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실 목적으로 우리를 징계 하신다 — 히 12:6.
  2.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잘못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— 민 12:1-16, 14:39-45, 16:1-50.
  3. 심지어 모세도 민수기 20장 2절부터 13절까지에서 잘못을 범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.
    - a. 모세는 심각한 잘못을 범했는데, 이 잘못이 하나님의 행정을 만졌으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용인하실 수 없었다 — 민 20:10-12.
    - b. 하나님의 행정은 의롭기 때문에, 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셨지만 그 이유만으로 그분의 행정을 집행하지 않으실 수는 없었다.
    - c. 모세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며, 그 결과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갈 그의 권리를 잃어버렸다 — 민 20:12, 신 3:23-29.

## 결정 연구 개요

### 메시지 2 (계속)

- 1) 여호와와 모세가 그 땅을 바라보는 것만 허락하셨을 뿐, 그 땅에 들어가도록 허용하지는 않으셨다 — 신 34:1, 4.
- 2) 따라서 “여호와와 중 모세는 여호와와 말씀대로 그곳 모압 땅에서 죽었다.” — 신 34:5.
- 3) 모세는 사십 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, 그의 잘못이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과 관련되었기 때문에,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갈 권리를 잃어버렸다 — 신 4:21.
- d. 좋은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는 문제에서 모세가 거절당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적인 행정을 보여 준다.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, 곧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의 한 예였다 — 신 1:37.
  - 1) 하나님께서 모세가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것에서 모세를 다루신 방식은,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운 다루심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하였다 — 신 4:21.
  - 2) 모세가 받은 징벌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종의 온전케 함이었다. 그들은 이것을 통해,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적인 다루심에서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배워야 했다 — 신 32:52.

### Ⅲ.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이다.

- A. 하나님은 의로우시며, 그분의 통치는 의 위에 세워진다 — 요일 1:9, 계 15:3, 시 89:14.
1. 하나님의 통치에는 의가 요구된다. 의는 하나님의 통치의 문제이다 — 시 89:14, 뱀전 2:23-24.
  2. 의는 하나님의 외적인 행사와 길과 행동과 활동과 관련된다.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다 — 계 15:3.
  3. 하나님의 의는 정의와 의와 관련된 행동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다 — 요일 1:9, 계 16:7.
  4. 의는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된다 — 롬 14:17.
    - a. 하나님의 보좌는 의를 기초로 하여 세워진다 — 시 89:14.
    - b.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왕국도 있다 — 사 32:1, 히 1:8-9.
  5.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죄들을 향하여 죽었는데, 이것은 의를 향하여 살기 위한 것이다 — 뱀전 2:24.
    - a.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— 마 5:20, 요일 2:29, 3:7.

## 신명기

### 메시지 2 (계속)

- b. '의를 향하여 산다'는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적인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— 벰전 2:24.
  - 1)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의롭게 살기 위한 것이다. 즉, 하나님의 통치의 의로운 요구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살기 위한 것이다 — 시 89:14, 마 5:20.
  - 2)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죄들로부터 분리되었고,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,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의를 향하여 살게 되었다 — 롬 6:8, 10-11, 18, 엡 2:5-6, 요 14:19, 딤후 2:11.
- 6. 하나님의 통치가 의를 요구하기 때문에, 베드로후서 3장 13절은 “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고대하고 있습니다.”라고 말한다.
  - a. 이것은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고, 머리아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며, 규제받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.
  - b.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와 왕국과 신성한 행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, 모든 것이 통치받고 통제받으며 합당한 다스림 아래 있을 것이며, 그 결과는 화평과 기쁨일 것이다 — 롬 14:17, 15:13, 33.
- B. 하나님은 거룩하시다. 거룩함은 하나님의 주된 속성들 중 하나이다 — 벰전 1:15-16.
  - 1. “네 생물은 ...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외칩니다. ‘거룩하시다, 거룩하시다, 거룩하시다,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,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.’” — 계 4:8.
    - a.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의 강조점은 삼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며 삼중으로 거룩하시다는 것이다.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, 곧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을 가리킨다.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거룩하다 — 사 6:3.
    - b.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것은 그분의 본성, 곧 그분의 어떠하심의 특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— 히 12:10.
  - 2. “우리 하나님은 태워 버리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.” — 히 12:29.
    - a.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함과 엄격함 안에서 태워 버리는 불이시다 — 신 9:3, 롬 11:22.
    - b.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, 태워 버리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태워 버리실 것이다. 이와 같이 그분은 엄격하시며, 엄격함 안에서 그분의 거룩함을 표현하신다 — 신 9:3.
- C.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— 벰전 4:19, 고전 1:9, 10:13, 계 3:14, 19:11.

## 결정 연구 개요

### 메시지 2 (계속)

1.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.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— 신 8:3, 딤후 1:15, 딤후 2:11.
  2. 우리를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전 존재를 온전히 보존하실 것이다 — 살전 5:23-24.
  3. 신성한 신실함은 하나님의 달콤한 속성이다 — 딤후 2:13, 요일 1:9.
  4. 신명기 7장 9절부터 15절까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 원했다.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이들에게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고 자애를 베푸신다.
- D.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— 엡 2:4, 요일 4:8-10, 16, 신 7:7, 10:14-15, 렘 31:3.
1.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이다. 따라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다 — 롬 5:5, 8, 8:35, 39, 15:30.
  2.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해 준다 — 신 7:7, 10:14-15, 11:12.
    - a. 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엄격하고 좁으시지만,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넓고 모든 것을 포용하신다 — 렘 31:3.
    - b.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, 그분의 사랑은 망치는 사랑이 아니라 온전케 하는 사랑이다.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, 이것은 그분께 통치적인 행정이 있기 때문이다 — 히 12:6.
  3. 전체적으로 볼 때, 신명기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위해 최고도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분의 뜻과 미리 아심에 따라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— 엡 1:4-5, 9, 11, 벰전 1:2, 롬 8:29.
    - a.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일에서 실패하였고 또 신실하지도 않았다.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다 — 빌 1:6.
    - b.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며, 결국에는 우리로 그분의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의도를 성취하실 것이다 — 고전 1:8-9, 롬 8:37-39, 민 6:23-26.
- E. 신명기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시해 주는 면에서 매우 특별한 책이다 — 신 1:6-8, 3:20-21, 24, 4:1.
1. 다시 말해 내어진 모든 율례와 판결과 함께 새롭게 발전된 율례와 판결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관해서 상세하게 말해 준다 — 신 7:7, 10:14-15, 11:12.
  2.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실 뿐 아니라, 매우 섬세하시고 다정하시고 사려 깊으시고 동정심이 많으시다.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— 엡 1:3, 17, 2:4, 계 5:12-13.